

다산포럼

김태희



도대체 어찌하면 새로운 수 있을까? “옛것을 배우되 새롭게!” 이른바 ‘법고창신론(法古創新論)’을 주창했던 연암 박지원이 안의 현감으로 부임했다. 고을에 부임해서 보니, 정당(正堂) 근처에 버려진 관사가 있었다.

스포트츠에서 이런 사례는 많다. 감독이 새로운 선수 두어 명을 추가하고 포지션을 약간만 바꾸어도, 팀은 전혀 새로운 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 과거 히딩크 축구도 그 일례였다.

새로운 정치를 보고 싶다

아진다. 그만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정치도 새로워질 수 없을까?

집권 여당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것을 보면, 집권기간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을 알겠다. 야당이 ‘민주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을 보면, 야권이 통합한 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겠다.

알 수 있다. 이른바 살짝 바꾸어 새로운 수 있다면 더 말할 게 뭐 있겠나. 당명에 통합을 넣어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어려울 게 뭐 있겠나.

과거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서두른 것은 정치전략상 통합에 미이너스였다. 경제학의 기본 내용인 비교우위에 입각해볼 때, 양국이 전체적으로 상호이익이리지만 그 전에 당장 산업경쟁력에

장은 반대로 바뀌었지만 오히려 다했다. 여전히 통합에 역행하는 정치전략이라는 점과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주는 점에서 그렇다. 새누리당의 대응 역시 마찬가지다.

그 사이에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이 밀려나고 있다. 혹자는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등에 대해 왜 정치권과 언론이 가볍게 다루느냐며 불만이다.

정당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를 제기하여 다수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통합은 다수의 참여와 활발하고 경쟁한 경쟁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정당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를 제기하여 다수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통합은 다수의 참여와 활발하고 경쟁한 경쟁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일부를 바꾸더라도 확연한 자기 색인을 도모하는 정당을 보고 싶다.

민주통합당은 구성원 다수가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었는데도 태도를 바꾸어 한·미 FTA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조했다. 주

우리 모두의 갑탄을 자아냈다. 중국 특유의 발표 문화 속에서 어린이들은 평소 표현이 잘 된 것 같았다.

반면, 미국 교포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기니피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통역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등, 창의성이 돋보이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좋았지만 목소리가 작고 이야기하듯 발표를 했다.

연변 어린이들의 각뚫한 인사 예절과 점심시간에 어른들에게 물을 떠다 주는 것 등이 눈에 띄었다. 발표 태도, 인사성, 남에 대한 배려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연변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을 것이다.

연변 어린이들의 각뚫한 인사 예절과 점심시간에 어른들에게 물을 떠다 주는 것 등이 눈에 띄었다. 발표 태도, 인사성, 남에 대한 배려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연변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을 것이다.

연변 어린이들은 ‘복색성장’을 주제로 준비해 왔기에 비슷한 내용이었다. 전년도에 자유주제로 창의적 접근을 시도했다던 아이들이의 무한 상상에 대하여 중국 관계자가 ‘비현실적’이라고 평하던 것이 생각났다. 우리는 창의적 발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유주제를 고수하였다.

발표시간에 연변 어린이들은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하여 모두 분명한 어조와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발표를 해서

시설

적조 확산 양식어장 대책 마련 시급하다

한동안 잠잠하던 적조가 전남 해역에 출현, 양식어장 피해가 발생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지난 1995년부터 거의 매년 발생해 오던 적조가 지난 2008년 이후 종적을 감춘 듯했으나 4년 만에 다시 나타나 어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6일 여수시 화정면 개도 인근 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했다. 경남 남해에서 시작된 적조가 전남까지 여수 돌산을 동쪽 바다에만 발견됐으나 이날부터 서쪽 해역까지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조는 바다물의 부영양화가 수온상승에 따라 유독성 플랑크톤을 증가시켜 어패류를 폐족시키는 무서운 재난이다. 부영양화는 주로 생활오수와 공장 및 농·축산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적조야말로 환경오염의 엄포인 셈이다.

적조 대책은 결국 바다오염을 막는 일이다. 생활오수와 공장폐수로부터 바다의 오염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황토살포에 의존하고 있는 방제 도 전직을 이용한 퇴치 등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폭염 속 전력 비상, 節電 경각심 가져야

6일 오전 11시 5분 전력거래소가 전력경보를 발령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예비전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경보가 잇달아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일 오후 9시를 기해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최대 수요전력이 497만kW를 기록, 지난해 최대치인 479만kW를 경신했다. 이로 인해 광주 시내 일부 아파트와 상가가 과부하로 정전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전국적으로 6일 오전 11시 15분 예비전력이 300만kW 미만으로 10분 이상 지속되자 전력거래소는 전력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다. 이날 오후 예비전력은 310만kW 선으로 늘었지만 주의 경보는 유지되고 있다. 주의가 발령된 것은 작년 9·15 정전사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전력수요가 통상량보다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자 전력 예비비 동원도 검토하고 있다.

떨어졌을 것이라고 밝힌 전력대란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폭염이 이번 주까지 예고되고 있어 긴급한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무엇보다 원전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상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100만 kW급 원전 1기만 멈추어도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목표했던 절감량(15%)을 넘어선 22%를 절감했다. 폭염에도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한 국민의 전력절약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목표했던 절감량(15%)을 넘어선 22%를 절감했다. 폭염에도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한 국민의 전력절약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네팔에서 온 편지 (21)



박행순

네팔의료심의원위원회에서는 매년 각 의과 대학에 평가 요원들을 보내서 교육시설, 교육과정, 교수요원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모든 교수들을 개별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다.

나는 올 12월 말까지 객원교수로서 1년 계약을 맺었지만 7, 8월에 일시 귀국을 하기로 대학 측에 양해를 구했다. 7월 말에 중국 연변의 조선족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한·중 청소년 과학캠프를 열기로 일 년 전에 연변 측과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청소년 과학캠프

다음날 아침에 미국,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세 나라의 어린이들이 모였다. 예정에 없던 미국 교포 아이까지 참석하였기에 영어로 진행을 시도했다. 놀라게도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연변 아이들도 제법 통하는 것이었다.

연변 어린이들은 ‘복색성장’을 주제로 준비해 왔기에 비슷한 내용이었다. 전년도에 자유주제로 창의적 접근을 시도했다던 아이들이의 무한 상상에 대하여 중국 관계자가 ‘비현실적’이라고 평하던 것이 생각났다.

기고

극장의 여자화장실이 부족한 이유는



최순애

일상에서 극장이나 백화점, 공연장 등에 가면 왜 여자 화장실만 사람이 많고 길게 줄을 서 불편한지에 대해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의식조차 한 적이 없는가? 이 질문에 심도 있게 접근해서 건물 내에 있는 남녀 화장실의 변기와 면적에 대한 통계를 산출해 보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좌변기밖에 없다. 게다가 좌변기는 남성 소변기보다 필요한 공간이 더 크다.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는 것은 주로 여성일 경우가 더 많고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펴면 된다.

예를 들어 화장실은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빈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비율이 되도록 설계하고 버스 손잡이는 남성과 여성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측정하여 다양하고 적당한 높이로 세분화하고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기동 손잡이를 곳곳에 배치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다. 전남도는 청사 내 남녀 화장실 이용 평균시간(여성 2분 30초·남성 1분 24초)을 고려해 여성화장실 변기 수를 늘렸고 여자가 더 오래 기다리는 기존 대부부는 성인 남성인 경우가 많았다.

그럼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 사회문화적 위치, 경제적 위치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펴면 된다.

예를 들어 화장실은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빈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비율이 되도록 설계하고 버스 손잡이는 남성과 여성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측정하여 다양하고 적당한 높이로 세분화하고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기동 손잡이를 곳곳에 배치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다. 전남도는 청사 내 남녀 화장실 이용 평균시간(여성 2분 30초·남성 1분 24초)을 고려해 여성화장실 변기 수를 늘렸고 여자가 더 오래 기다리는 기존 대부부는 성인 남성인 경우가 많았다.

그럼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 사회문화적 위치, 경제적 위치에 따른 특성을

전남에서는 2005년부터 전남도와 각 시군을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 평등 정책개선에 실

효성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고 이를 불시강행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전남여성플라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전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컨설팅, 교육, 포럼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전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주축으로 하여 남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거듭날 전망이다. 그러나 제도중심에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회, NGO, 언론, 전문가와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결합하여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역사회의 성 평등을 실현하고 남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제도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이다.

〈전남여성플라자원장〉

있고, 남자는 적당한 취해 있으나 그럴 수밖에 없다. 거기가 대리운전자가 손내에게 합부로 했다가는 회사에서 해고당할 것 같으니가 웬만하면 참는 수밖에 없다는걸 약속하는 것이다.

심야시간대의 일부 만취 남성 취객들이

생업전선에 나선 여성 대리운전자를 괴롭게 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한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일선에 나선 연약한 여성들에게 술 좀 마셨다는 핑계로 이 같은 짓을 하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

▲김기원·광주시 서구 세하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